



ALL in ONE

한 번에 정체를 간파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
아이소플렉스의 디자이너 이강일이 만든
모듈러 시스템 아우터도 그중 하나다.

editor CHO EUN JUNG
photographer RAH IN SOO

L'officiel Hommes(이하 **LH**) '모듈러 시스템을 적용한 아우터'가 대체 무엇인가?

이강일 파카는 라이너(충전재가 들어간 내피)와 외피가 결합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원래 파카는 방수, 방풍 기능의 외피(Shell)이고 라이너는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분리형 아우터는 여름을 제외한 3계절 내내 입을 수 있고, 라이너 충전재의 양에 따라 보온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좋은 퀄리티의 분리형 아우터는 제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피와 라이너를 각각 판매하되, 분리와 결합이 자유로운 모듈러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DSLR 카메라와 렌즈를 별도로 판매하는 시스템과 같은 맥락이다.

LH 모듈러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강일 장점은 튜닝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피 하나당 세 단계의 보온력과 세 가지 컬러 라이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더불어 코요테나 블루 폭스 소재의 후드 털도 선택 가능하다. 게다가 한 번 구입한 모듈은 다음 시즌에 발매될 제품에도 적용 가능하니 경제적인 동시에 자원의 낭비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소비자 가격이 단점이다.

LH 당신은 철학을 전공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디자인 철학은 무엇인가?

이강일 아이소플렉스(Isotfx)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지만 철저히 제품 사용자 입장에서 바라본다. 소비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좋다'고 느껴지는 디자인을 거침없이 시도해본다.

LH 아이소플렉스 아우터의 대표적인 디자인적 요소는?
이강일 아이소플렉스의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진 '전면 개방형 수납공간'이다.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수납공간은 가방이 아닌 아우터의 포켓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구상 기간 5년, 실제 개발 기간 2년이 걸린 회심의 역작이기도 하다. 아우터 M9과 M7의 왼쪽 전면부에



다. 디자인을 시작할 때는 따뜻한 것, 수납공간이 많은 것, 움직임이 편할 것 등 기능적 요소를 먼저 따진다. 그러다가 한계가 느껴지면 좀 더 '우아한' 방향을 선택한다. 걸감이 뻗뻗하면 움직임일 때 불편하지만 좀 더 멋지고 우아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말이다.

LH 아이소플렉스를 어떤 남자에게 추천하고 싶은가?

이강일 멋에 대해 기준이 명확한 남자.

LH 다음 시즌 테마는 무엇인가?

이강일 아이소플렉스는 시즌 테마가 없다. 그저 카테고리별로 도구적 목적에 따른 진화만 있을 뿐이다. 다음 시즌에는 수납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하고 라이너의 종류를 늘리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LH 지금 당신의 관심사는?

이강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패션 유통 구조다. 이러한 시대에 매거진, 리테일러, 브랜드는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중심축은 '좋은 디자인의 제품'이지만 그것을 전달하고 접근하는 방식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패션쇼에 참가하는 대신 프로모션 영상 제작에 집중하는 것도 시대 변화에 발맞추려는 노력이다.

LH 2015년 12월이다. 당신의 새해 다짐은 무엇인가?

이강일 2016년은 아이소플렉스와 내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어떤 시점이 오면 공격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이 그 첫 번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LH 마지막으로 '아이소플렉스'의 뜻을 알려달라.

이강일 'Isotfx'는 'In a State of Flux'의 약자로 '항상 변한다'는 의미다.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체되지 말자는 다짐인 동시에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진화시키겠다'는 아이소플렉스의 디자인 정신에 관한 선언이기도 하다. ㉠